

MAPPING THE ZEITGEIST

THE 16TH WORLD KNOWLEDGE FORUM

제16회 세계지식포럼

2015. 10. 20-22
장충 · 신라호텔

매일경제 **MBN**



MESSAGE FROM THE CHAIRMAN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식을 향한 많은 분들의 열정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최고 글로벌 포럼으로 우뚝 선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국내 포럼 역사를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품격 글로벌 포럼 표준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매년 포럼 지평을 새롭게 열고 있는 세계지식포럼은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지난해 포럼 장소를 신라호텔로 바꿔 변화를 줬고 올해는 장충체육관도 세계지식포럼 메인 무대로 함께 활용합니다. 지난 52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이었던 장충체육관이 전세계 지식축제 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동시에 펼쳐질 올해 지식 향연은 지금껏 그 어떤 포럼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지식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는 종전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날로 심화되는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이유입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 글로벌 석학과 파워엘리트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갈 나침반이 될 소중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지식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 환

Sae-whan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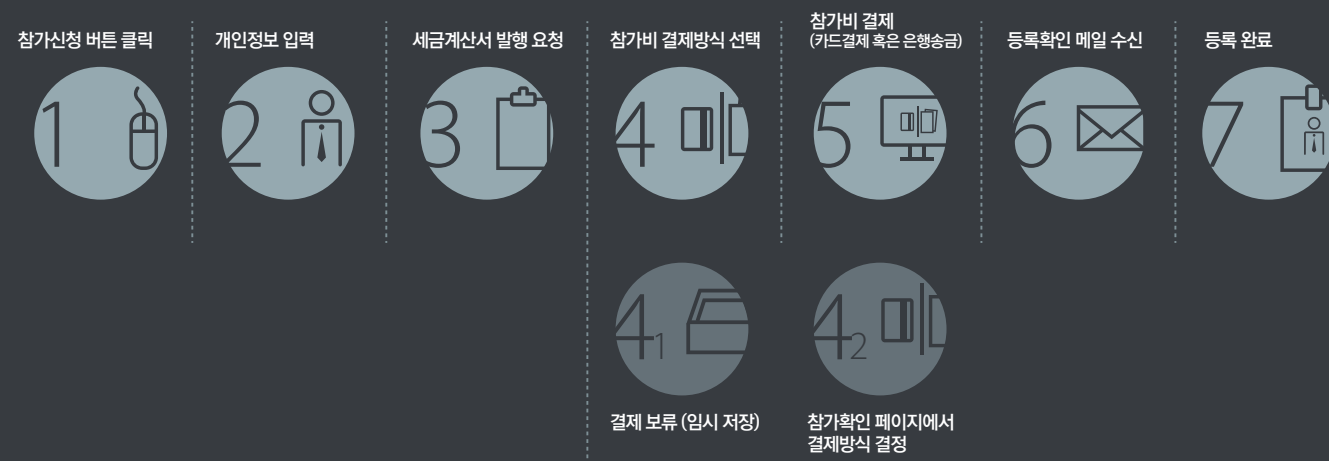


등록절차안내

제 16회 세계지식포럼은 온라인 참가신청만 가능합니다.
www.wkforum.org

* 등록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E-mail로 발송해드립니다.

1. 온라인 참가신청 절차



2. 참가비 안내

구 분	조기등록 할인 (~8월 31일)	일반등록 (9월 1일 ~ 9월 30일)
일 반	₩2,970,000	₩3,300,000
할인 (50%)	대학생, 장애인 (1 ~ 3급) ₩1,650,000	

제 16회 세계지식포럼

2015년 10월 20일 ~22일
장충 • 신라호텔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Tel : 02-2000-2620~3
Fax : 02-2000-2419
E-mail : wkf_reg@mk.co.kr

-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신청은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혜택은 자동취소됩니다.
-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로, 일반등록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완료하셔야 최종등록으로 인정됩니다.

- 참가자에게는 세계지식포럼 자료집, 중식, 만찬이 제공됩니다.
- 대학생 할인은 전업 대학생에 한합니다. (등록시 재학생증서 제출 필수)
-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30일(수) 오후 6시까지 취소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참가비에 숙박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세계지식포럼 자료는 포럼 기간에 현장에서만 제공됩니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최대·최고 지식향연
장충·신라호텔에서
시작합니다

THE 16TH WORLD KNOWLEDGE FORUM



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The 1st World Knowledge Forum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The 2nd World Knowledge Forum
Drawing the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The 3rd World Knowledge Forum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The 4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The 5th World Knowledge Forum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The 6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The 7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e Economy

The 8th World Knowledge Forum
Wealth Creation and Asia

The 9th World Knowledge Forum
Collabonomics & Greater Asia

The 10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The 11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The 13th World Knowledge Forum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Leadership, Integrity, Creativity and Happiness

The 14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etamorphosis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THE 16TH WORLD KNOWLEDGE FORUM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시작된 세계지식포럼은 창조적 지식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00년 10월 출범했습니다. 이후 세계지식포럼은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격차 해소,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3300여명의 글로벌 연사들과 2만 7000여명을 웃도는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와 모리 요시토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도널드 존스틴 전 OECD 사무총장, 주민 IMF 부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마이클 델 델컴퓨터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피터 보저 로열더치셀 CEO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폴 케네디, 누리엘 루비니, 마이클 포터, 프란시스 후쿠야마, 앨런 그린스펀, 조셉 스티글리츠, 그레고리 맨큐 등 석학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는 200여명의 연사와 3000여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시대정신을 찾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MAPPING THE ZEITGEIST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Zeitgeist

The defining spirit or mood of a particular period of history as shown by the ideas and beliefs of the time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자이트가이스트

한 시대를 규정짓는 정신, 분위기, 사상, 철학. 독일어로 시대를 뜻하는 자이트(zeit)와 정신을 의미하는 가이스트(geist)에서 유래한 단어. (옥스퍼드대 영어사전)

세계는 기존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新)시대에 접어들었다.

오랜기간 최적의 효율성을 발휘하며 눈부신 글로벌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고조, 합의 실종에 따른 정치권 갈등과 마찰 파열음 확산 때문에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G2(미국·중국) 쌍두마차는 텅텅거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기능 마비와 신고립주의 망령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채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고도성장 한계에 직면한 중국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옛 소련제국 영광 재연에 나선 러시아 신파권주의는 신냉전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부채를 틈탄 이슬람국가(IS)의 세력확장으로 중동 지정학적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시스템을 유지해온 기존 패러다임이 힘을 잃어가는 한편 지구촌 질서를 지지해 온 국가간 힘의 역학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속에 기업들도 새로운 사고, 경영방식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전지구적인 경쟁속에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순식간에 기존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대정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시대의 도도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임기응변식 대응 밖에 할 수 없다. 국가, 경제, 기술, 사회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적 글로벌 변혁 시기에 생존력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신(新)시대에 걸맞는 신(新)시대정신을 장착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시대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통해서만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파괴이 가능하다. 파괴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낼 신리더십 역시 시대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기반위에서만 가능하다. 올해 세계지식포럼 주제를 ‘새로운 시대정신(자이트가이스트)을 찾아서’로 정한 배경이다.

지식확산과 공유를 통한 전지구적 지식국가 창조를 시대정신으로 삼아온 세계지식포럼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시대정신을 찾기 위한 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불확실성, 불안정성, 복잡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전 세계에 제시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THE 16TH WORLD KNOWLEDGE FORUM

Zeitgeist

Restarting Growth & New Economy

New Entrepreneurship & New Leadership

Shifting Global Geopolitical Landscape & Korea

Global Rule-setter China : Risk or Opportunity?

Promising and Futuristic Industry

Infra & Energy WAR

ZEITGEIS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달려왔다. 공멸이라는 최악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저성장에 신음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경을 맞댄 국가간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전세계가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에 돌입하면서 파열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눈앞의 위기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근시안적 비전이 불확실성 주범이다. 글로벌 리더십 위기 역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고찰 없는 그 어떤 처방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가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가 위기와 또 다른 위기를 반복하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속에 험사인 시계제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등대가 돼줄 새로운 시대정신 발견을 위해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다양한 세션을 준비했다. 새로운 시대흐름의 방향타를 제시하는 세션부터 인류 문명사를 되짚어보는 세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위한 심리학 세션까지 인문학계 최고 연사를 세계지식포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시대 최고 미래학자들이 10년 후, 20년후 미래를 전망하는 특별 세션도 준비했다.



폴 케네디 Paul Kennedy
예일대 교수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프린스턴대 고등학술연구협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와 알렌산더 폰 훔볼트 회원을 지냈다. 미국 철학협회와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2003년 브리티시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예일대에서 ‘1500년대 이후 서양의 군대 역사’를 강의하고 있고 강대국 정치에 대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다. 강대국의 도전과 영국 대외정책 역사에 관한 19권의 책을 저술했다. LA 타임즈, 트리뷴 미디어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대표 저술인 <강대국의 흥망>은 과거 500년간 경제와 전략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1988년 출간됐을 때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며 20개 언어로 번역됐다. 2006년 저서 <The Parliament of Men>은 미국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책이다. 2013년 출간된 대표 저술인 <Engineers of Victory>는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다루고 있고 현재 신저 <Victory at Sea, 1937-1939> 저술에 들어갔고 <강대국의 흥망>을 재집필중이다.



아티페테 야하가 Atifete Jahjaga
코소보 대통령

코소보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지난 2011년 취임했다. 코소보는 지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1975년생으로 전 세계 최연소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다. 경찰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코소보 경찰 부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인구 189만명의 코소보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 전 세계 108국에서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정식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테오 바이겔 Theo Waigel
독일 전 재무장관

1989년 헬무트 콜 총리 정부에서 서독 재무장관으로 임명돼 이듬해 통독 과정을 지휘했다. 1998년까지 통일 독일 재무장관으로 일했다. 후일 인터뷰에서 “통일이 됐다고 기뻐한 시간은 짧았다”며 통합 과정의 지난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통일 이후엔 EU와 유로 출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로(Euro)의 아버지’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유로 이름을 제안한 것도 바이겔 전 장관이다. 1939년생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2009년 자신이 몸담았던 기독교사회당(CSU) 명예 대표로 추대됐다.



돈 탭스콧 Don Tapscott
탭스콧 그룹 CEO

미래학자로 혁신과 미디어, 기술이 불러올 변화에 대한 세계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벨 연구소를 다니다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탭스콧그룹을 세웠다. 지난 2013년 싱커스50에서 선정한 세계주요인사 리스트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패러다임시프트>, <위키노믹스> 등 디지털경제 등을 주제로 한 15권의 책을 펴냈다. 토론토대학 로트먼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캐나다훈장’을 캐나다 총독으로부터 받았다. ‘맨인수트’ 밴드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기부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기시미 이치로 Ichiro Kishimi
<미움받을 용기> 저자

<미움받을 용기>로 올해 아들러 심리학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1870~1937)에 관한한 일본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평생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책을 내놨고 올해 <미움받을 용기> 인기에 힘입어 다른 책들도 번역 출간됐다. <미움받을 용기>는 일본에서도 2014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토대를 졸업했고 교토 인근에 자신의 카운슬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와 독일어 전문번역가로도 활동 중이다.



RESTARTING GROWTH & NEW ECONOMY

2008년 9월 전세계 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를 초래한 글로벌 금융위기후 7년이 흘렀다. 전세계 경제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이제 성장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 연초만 해도 올해가 위기후 강한 성장 원년이 될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IMF와 세계은행이 잇따라 연초 제시한 글로벌 경제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상태다. 글로벌 경제가 시계제로 불확실성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렉시트, 브렉시트 등 유로존과 EU(유럽연합) 존재의미를 뿌리째 흔들수 있는 이벤트가 전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경제 회복 자생력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속에서 9년 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그동안 돈의 힘으로 상승한 글로벌 자산값의 날개없는 추락에 시동을 거는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자국통화가치 떨어뜨리기 경쟁은 전지구적 환율전쟁을 촉발, 전세계 경제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는가 싶던 세계경제가 또다른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세계지식포럼 현장에서 석학들이 이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 새로운 성장을 할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Timothy Geithner
전 미국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는 미국 오바마 정부 1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섰다. 당시 뒷얘기를 담은 회고록 〈스트레스테스트〉를 지난해 출간했다. 미국 재무부 차관,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등을 거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냈다. 미국 다트머스대 아시아학과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사모펀드 워버그핀커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Nouriel Roubini
뉴욕대 스텐스쿨 경영대학원 교수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중 한명인 누리엘 루비니는 그의 비관론적 경제관점 때문에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부동산 시장 몰락을 예측해 명성을 떨쳤다. 뉴욕대 스텐스쿨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경제컨설팅회사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도 전세계에서 열리는 포럼의 단골연사이자 전세계 정부 · 중앙은행 · 기업 등에 자문을 하는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린폴리시 잡지에서 선정하는 ‘100명의 글로벌 사상가들’ 순위에서 4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Laurence Kotlikoff
보스턴대 교수

보스턴대 경제학과 학장이자 교수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때 경제자문위원회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지난 2012년 미국 대선때 제 3후보로 대선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재정정책, 국가채무, 개인재정 분야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1973년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1977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6권의 저서를 냈고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복잡 다기한 경제문제에 대한 탁월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온 경제 석학이다. 영국, 러시아 등 국가는 물론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미래 경제 트렌드에 대해 조언을 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 전세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인 고령화와 세대갈등 전문가로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다. 세대갈등 문제를 다룬 〈다가오는 세대폭풍〉, 〈세대충돌〉 등의 저서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율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급감, 글로벌 경제 충격을 경고한 바 있다.



하마다 고이치 Koichi Hamada
예일대 교수

하마다 교수는 2012년 발간된 〈미국은 일본의 부활을 알고 있다〉는 저서를 통해 현재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주인공이다. 일본에선 ‘노벨경제학상에 가장 가까운 일본인’이란 칭송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베 버블의 교주’란 평가도 나온다. 내각관방참여라는 비상근직 형태로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제 참모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자민당 모리 · 고이즈미 정권에서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본 디스플레이선이 불충분한 금융정책 결과이므로 과감한 양적완화정책을 추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엔저를 유도해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이 설립한 ‘아베 펠로’ 연구원으로 선발된 것을 계기로 그 아들인 아베 신조 현 총리와 가까워졌다고 한다

NEW ENTREPRENEURSHIP & NEW LEADERSHIP

장기 저성장, 과도한 청년 실업과 이에따른 사회적 불안정, 눈덩이처럼 커지는 소득·사회적 불평등, 신분상승 사다리 부재 등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경제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기업가정신 회복을 통한 성장이다. 성장을 통해 분배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21세기 기업가 정신이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의를 되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21세기형 기업가정신 표준을 글로벌 기업인들과 함께 모색한다.

최적화된 결과물을 도출할수 있는 리더십도 다룬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전세계 정치는 현재 마비상태다. 합의정신이 실종되고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에 무릎을 꿇은 정치 환경은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회 진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인들이 동업자정신을 회복하고 합의를 통해 차선을 택할수 있는 리더십 회복이 어느때보다 더 필요하다. 어떤 리더십을 구현해야 최적의 사회·경제 발전을 이룰수 있는지에 대해 리더십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다.



네이션 블레차르치크
Nathan Blecharczyk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네이션 블레차르치크는 에어비앤비의 공동창업자다. 지난 2008년 브라이언 체스키 현 CEO와 함께 세운 에어비앤비는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 대표주자다. 현재 에어비앤비 기업 가치는 255억달러(28조원)로 세계최대 호텔 체인 힐튼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 세계 190개국, 3만 4000여 도시에 120만여곳의 숙박시설을 확보하고있다. 1984년 생으로 만 31살인 그의 재산은 19억달러(약 2조원)에 달한다. 하버드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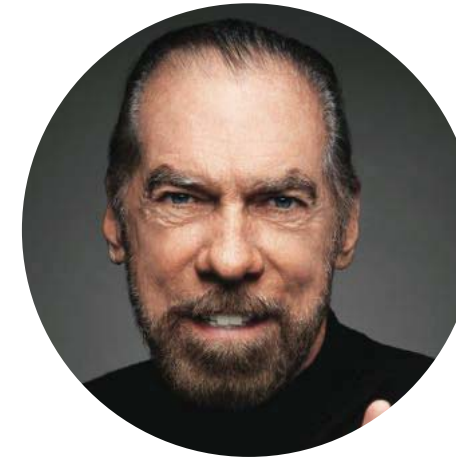
존 라이스 John Rice
GE 부회장

2011년부터 GE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1978년 GE에 입사한 이래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홍콩에서 GE 부회장이자 GE기술기반사업부문 회장 겸 CEO로 일하고 있다. 2005~2007년까지 GE 산업·인프라 사업 부회장, 2000~2005년까지 GE에너지 CEO, 1997~2000년에는 GE 운송사업부문 CEO로 일했다. 해밀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해밀턴대학과 예모리 대학 기금 신탁이사, 사우디 아라비아 킹 파하드 석유광물대학과 질병 관리·예방센터의 국제 자문 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크리스토프 쿠처
Christof Kutscher
AXA자산운용 회장

크리스토프 쿠처는 AXA자산운용 회장을 맡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UBS 글로벌 자산운용 총괄헤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UBS그룹 사장을 지냈다. UBS에 합류하기 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LGT 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이사회 이사를 맡았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스위스은행 투자 전략헤드를 맡았다. 1989년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LGT은행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았다. 스위스와 스웨덴에 있는 바이오테크 회사 지노디스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유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존 폴 데조리아 John Paul DeJoria
존폴미첼시스템스 CEO

헤어케어업체 존폴미첼시스템스 CEO다. 9살 때부터 신문배달 등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 고등학교 때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은 친구’ 1위에 뽑히기도 했다. 화장품 업체 등에서 밑바닥부터 일하다 1980년 36세때 헤어디자이너 폴 미첼과 공동창업할 당시 밑천은 700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연 매출 10억달러를 기록하는 거대기업이 됐다. 프리미엄 데킬라 업체 패턴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어려웠던 때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나누지 않는 성공은 실패다”를 삶의 모토로 삼아 기부에도 적극적이다. 2011년 전 재산의 절반 기부를 약속하는 ‘기부 서약(Giving Pledge)’에 동참했고 이를 위한 재단도 설립했다. 영화 제작에도 열심이다.



라구 크리슈나무르티
Raghu Krishnamoorthy
GE 크로톤빌 원장

라구 크리슈나무르티는 지난 2013년부터 GE 인재관리 총괄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다. 부사장 외에도 그에겐 CLO란 직함이 있다. 최고교육책임자(Chief Learning Officer)다. ‘인재사관학교’로 알려진 GE 크로톤빌을 총괄하면서 인재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94년 GE캐피탈 인도지사 인사담당으로 영입된 후 GE, GE항공 등에서 HR업무를 해왔다. 인도에서 학부와 MBA를 마쳤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네소타대학에서 공부 했다.

SHIFTING GLOBAL GEOPOLITICAL LANDSCAPE & KOREA

올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간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속에 군사력 팽창을 꾀하는 일본, 이에따른 주변국과의 영토다툼과 역사 분쟁 그리고 민족주의 발호, 세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을 봉쇄하기위한 미국의 간섭속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G2간 헤게모니 싸움, 날로 세력을 넓혀가는 IS와 심화되는 중동지역 무정부 상태 등 지정학적 마찰 요인이 산재해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도 큰 위협이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북한의 고립주의적 행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무기 소형화 등 핵무장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전세계 지정학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학적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 판도를 우리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국과 아시아가 선택할 묘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언 패네타 Leon Panetta
전 미국 국방장관

23대 미국 국방장관(2011~2013)을 역임했다. 오바마 정부 초대 CIA 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방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진행했고 CIA 국장 때는 빈라덴 사살 작전을 총괄했다.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2014년 펴낸 자서전 <값진 전투들>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동정책이 중심을 잃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는 백악관 비서실장(1994~1997)으로 일하기도 했다. 1938년생으로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공부했다.



칼 빌트 Carl Bildt
전 스웨덴 총리

스웨덴 정치인으로 국내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006년 이후 스웨덴 외무장관으로 일했다. 이에 앞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스웨덴 총리를 역임했다. 스웨덴 보수정권에서 61년만에 배출해낸 총리였다. 발칸분쟁 당시 UN 사무총장 특사로 활동하면서 '발칸의 중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 옛 유고 관련 EU특별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인터넷거버넌스 국제위원회(G-CIG)'를 출범시키고 의장 직을 맡고 있다. 트위터(@carlbildt)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덴버대학교 조셉코벨국제대학 학장

덴버대학교 조셉코벨국제대학 학장이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더욱 유명하다. 주한 미국대사(2004~2005)를 비롯해 마케도니아(1996~1999), 폴란드(2000~2004), 이라크(2009~2010) 대사를 지냈다. 코소보 특사로도 일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고 북핵문제 6자회담에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국과 매우 인연이 깊다. 보든대학을 졸업하고 해군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에 능통하다.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시카고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현실주의 대표학자다. 지난 2001년 첫 출간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통해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neorealism)를 주장했다. 국가는 가장 강대국이 될 때까지 권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핵심이다.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나와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스라엘이 로비를 통해 미국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적한 <이스라엘 로비> 등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다.

GLOBAL RULE-SETTER CHINA : RISK OR OPPORTUNITY?

얼마전까지만해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커진 경제적 덩치를 배경으로 신세계질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금융질서 판도를 뒤흔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은 중국식 세계화 출범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부터 '신형 국제 관계(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까지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글로벌 지정학적 지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전 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론도 큰 관심거리다. 지난 2008년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때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한편 과도하게 커진 자산거품 붕괴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중국발 글로벌 경제 충격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수출 · 투자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내수중심 경제로 경제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 중국 경제실현이 성공할지, '룰팔로워'에서 '룰세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파워풀 중국의 이상이 실현될지, 중국의 강력해진 파워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한 이슈를 놓고 세계지식포럼 현장에서 중국 전문가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진다.



후안강 Hu Angang
칭화대 교수 겸 국정연구센터 주임

칭화대 교수이자 국정연구센터 주임(센터장)을 맡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정책통 중의 한명이다. 30대 때부터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국정연구소조에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30년간 총 70여권의 책을 펴내며 중국 사회와 경제에 관한 제언을 쏟아내고 상당수가 지도부에 의해 채택됐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슈퍼파워 등극을 뜻하는 슈퍼차이나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1953년 라오닝성에서 태어나 중국과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상양 Li Xiangyang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이다. 중국 소장파 경제학자 대표 주자다. 국제 경제가 전공 분야로 글로벌 경제 체제와 중국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중국형 모델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자주 이론'을 외치고 있다. 금융 산업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이 강력한 부(富)를 축적하던 시기는 끝났고 이제 환경과 에너지가 새로운 주축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현대재정금융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과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우치런 Zhou Qiren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선임 교수

저우치런은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선임교수다. 중국 대표 경제학자로 실증경제학 분야 대가로 손꼽힌다. 제도경제학, 개발경제학,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업적을 쌓았고 재산권과 계약, 경제 제도 변화, 화폐와 금융, 토지제도 개혁과 도시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중국 런민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 지방 개발 연구센터를 거치며 지방개혁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 1989~1991년 옥스포드대, 콜로라도대, 시카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1991년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레이쓰하이 Lei Sihai
〈G2전쟁〉저자

저서 〈G2전쟁〉으로 유명세를 얻은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 경제칼럼니스트다. 중국 방송사 CRI에 국제 문제 전문가로 출연하는 한편 스제신원바오(世界新聞報) 수석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자다. 글로벌 정치경제와 자본시장의 장기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제5 제국의 멸망〉, 〈중국몽에 대한 10가지 질문〉 등이 있다. 2013년 출간한 〈결전: 중국과 미국의 통화전쟁〉은 텐센트 선정 베스트 금융서적에 뽑혔다. 신작 〈G2전쟁〉에서 2015년 미국 금리인상이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패권 전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등 주변국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예측을 내놔다.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를 졸업하고 세계 정치 · 경제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Eswar Prasad
코넬대 교수

코넬대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최근작 〈달러화의 덫〉 이후 환율문제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역설을 설명하고 이와같은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IMF 금융부문장과 중국부문장을 맡기도 했다. 인도출생으로 마드라스대학을 졸업한 뒤 브라운대학교와 시카고대학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와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인도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ROMISING AND FUTURISTIC INDUSTRY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 트렌드를 발 빠르게 읽어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속에서 자칫 한눈을 팔았다가는 곧바로 도태되는게 최근 산업계 뉴노멀이다. 글로벌 산업을 지배했던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등 과거 IT 거물들의 현주소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기업성패간 연관관계를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다툼속에서 세계지식포럼은 전세계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유망한 미래산업을 치밀하게 파헤치는 세션을 준비했다. 드론, 로봇,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우주항공, 핀테크, 자율주행차, 3D프린팅,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이시대 성장화두 산업을 총망라했다. 최첨단 산업 최고 전문가들이 미래 기술이 창출할 변화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해안을 제시한다.

사물인터넷(IoT)이 모든 것을 바꾼다

사물과 사물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은 산업계 최대 화두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사물인터넷이 2025년까지 연간 11조달러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공장·유통 매장·사무실·물류창고·자동차 등 특정 공간은 물론 도시 전체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도 힘을 받고 있다. 향후 제조업 경쟁력은 IoT에서 판가를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 IoT 전문가들이 글로벌 IoT 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홈 IoT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한다.

웨어러블 2.0

스마트밴드가 주류였던 웨어러블 시장이 애플워치 등장으로 2.0 시대를 맞게 됐다.구글 글라스가 촉발한 ‘스마트 안경’분야도 일반 소비자용은 물론 의료, 군사, 중공업 등 산업용 기기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웨어러블 1.0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도입기였다면 이제 혁신과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하락이 본격화되는 ‘웨어러블 2.0’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웨어러블 산업 미래 성장 잠재력을 조명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전통 금융시스템 뒤흔드는 핀테크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Fintech) 산업이 전통적인 금융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과 구글, 애플이 벌이는 핀테크 시장 주도권 싸움도 관심이다. 모바일 결제시장에선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핀테크 전문가들이 진화하는 핀테크 산업을 점검하고 핀테크를 활용한 소비자들의 금융소비 방식 변화, 급변하는 금융시장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계 화두 3D 프린터

3D프린터가 제조업과 일상 생활을 바꿀 혁신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컵, 접시 등 일상용품은 물론 복잡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건물에 이르기까지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제품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3D 프린터 시장 기반이 확대되면서 시장조사기관 홀러스어소시에츠는 3D 프린터 시장이 해마다 두자리수 이상 성장해 2020년에는 52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D 프린터가 바꿀 미래 산업현장과 가정의 모습을 전망한다.

자율주행차가 바꾸는 미래

자동차가 인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지 100여년만에 자동차 산업이 혁명적인 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구글, 애플 등 IT 공룡기업들까지 무인차를 미래 신성장 핵심동력으로 삼으면서 자율주행차를 놓고 이제 기존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IT 업체를 포함한 거대한 경쟁구도가 생겨나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 시대 개막이 가져올 자동차 시장 판도 재편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진단한다.

로봇혁명과 인공지능

한국의 휴보, 일본의 아시모, 페퍼 등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현실이 됐다. 소프트뱅크의 페퍼는 상용화돼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고 사람 모습의 로봇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호텔인 로봇텔까지 등장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이 확산되면서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로봇은 제조업, 서비스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다. 로봇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한국이 로봇시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조망한다.

꿈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강자다. 최첨단 ‘올레드(OLED)’시장에서도 두 업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중소형 올레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TV에 사용되는 대형 올레드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화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최첨단 기술 결합체 우주항공산업

기술 선진국과 기술 후진국을 가르는 대표적인 산업군 중 하나가 항공우주산업이다. 항공 기술력은 국력과 비례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은 2만개 정도지만 항공기는 20만개 이상이다. 전자·기계·IT·SW·3D 프린팅과 같은 첨단제조기법은 물론 에너지 등 최첨단 산업기술들이 융합돼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가 크게 바로 우주항공산업이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산업을 한국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의 쌀 차세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 산업 부흥을 이끌었던 반도체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D램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0%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약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 부상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경계 대상이다. 반도체 기술발전 현주소를 진단하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전망한다.

저유가 시대 신재생에너지 부활이나 침체나

세일혁명 등에 따른 원유공급 확대로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사회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1.5%에서 2030년 37.3%까지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져올 거대한 산업트렌드 변화를 진단한다.

한국 조선업 위기설의 실체

조선업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한국이 기로에 섰다. 2010년 이후 선박 수주량 급감으로 국내 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과도한 출혈경쟁속에 수주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면서 국내조선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조선업체들의 추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일본 조선업체들도 엔저를 업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한국 조선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중흥기를 맞을 수 있을까.

MSCI 가입과 한국 자본시장 현주소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진 자본시장 여부를 가릴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MSCI 선진지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여 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MSCI 선진지수는 미국, 유럽 등 23개 주요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MSCI에 편입이 되면 한국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커지고 그만큼 더 많은 투자자금이 한국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한국 자본시장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본다.

산업지형 뒤흔드는 드론

군사용에서 출발한 드론(무인기)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산업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은 물론 택배 서비스도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컨설팅업체 티그룹은 전 세계 드론시장이 2020년 1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이 가져올 미래상을 짚어본다.

도시경쟁력 끌어올리는 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을 뜻하는 MICE산업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 세계 MICE시장은 2012년 기준 1조 612억달러 규모다. 연평균 7.1% 성장을 지속, 2017년이 되면 시장규모가 1조 5,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굴뚝 없는 산업’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는 MICE가 한국에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INFRA & ENERGY WAR

8조2000억달러. ADB가 오는 2020년까지 아시아에서 쏟아져나올 인프라스트럭처 수요로 추산한 규모다. 구조적 정체(secular stagnation)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인프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인프라 수요가 넘쳐나는 아시아와 아세안 인프라 시장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세션도 대거 배치했다. 지난해 여름이후 급락한 국제 원유값이 내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에 대해 석유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또 화석에너지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온 셰일혁명이 계속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에스코 아호 Esko Aho
전 핀란드 총리

에스코 아호는 전 핀란드 중앙당 총재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핀란드 총리를 역임했다. 당시 36살에 총리에 올라 핀란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기록됐다. 2000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뒤 2012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비즈니스 & 공공 부문 연구를 담당하는 모사바-라흐마니 센터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8년 노키아에 합류해 사회적 책임과 대외협력 관계를 책임지는 부사장을 지냈다. 1981년 헬싱키대학에서 사회과학 석사를 취득했다.



KV 라오 KV Rao
타타선스 아세안총괄사장

싱가포르 국적의 KV 라오 사장은 인도 굴지의 대기업 타타그룹 모회사인 타타선스 아세안담당 총괄사장이다. 타타그룹내 발전사업을 담당하는 타타파워를 비롯한 복수의 자회사와 글로벌 연료공급과 운송을 담당하는 트러스트에너지리소스 등 조인트벤처의 아세안 담당 사장을 맡고 있다. 국제비즈니스 전문가로 타타그룹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며 40여개 국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비즈니스연합 남아시아 비즈니스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알도 플로레스 키로가 Aldo Flores-Quiroga
국제에너지포럼(IEF) 사무총장

알도 플로레스 키로가는 2012년부터 국제에너지포럼(IEF)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IEF는 중립적 성격의 글로벌 에너지 회의체다. IEF는 전세계 87개국 에너지 장관과 전문가들이 가입해있다. IEF는 6개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 에너지 시장 애널리스트들에게 신뢰도 높은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다. 플로레스 키로가는 IEF에 합류하기전 멕시코 에너지 장관 국제관계 보좌관과 외교장관 경제 보좌관을 지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르몬트대에서 정치경제학 교수를 지냈다. 멕시코 누에보레온 오토노머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과학 ·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크리스 포크너 Chris Faulkner
브라이틀링에너지 최고경영자겸 회장

크리스 포크너는 미국 델러스 소재 브라이틀링에너지 최고경영자(CEO)겸 회장이다. 브라이틀링 에너지는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개발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포크너 회장은 2013년 오일&가스 어워드 시상식에서 인더스트리 리더로 선정됐다. 또 같은 해 미국 에너지 연구그룹이 뽑은 올해의 석유기업 CEO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북미 · 유럽 · 중동 지역 오일 · 가스 전문가로 ECF 아시아 셰일 위원회 자문위원을 맡는 한편 BBC, CNBC, 블룸버그 등 방송에 출연하는 등 에너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던메소디스트대학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베일러대와 노스텍사스대에서 경영 · 수학을 전공했다.



서울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MBA



•WKF 만찬

INSEAD
The Business School
for the World®

INSEAD

미국 MBA 아성에 맞선 유럽 최고 경영대학원 인시아드는 매년 미니MBA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발라고팔 비사, 마누엘 소사, 필립 앤더슨, 마이클 피치 교수 등이 4 개 세션을 통해 생생한 경영비법을 전수합니다.

NEW YORK UNIVERSITY
NYU
STERN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

NYU STERN

파이낸스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대 스텐 경영대학원이 신개념 통화 '비트코인'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세션을 마련합니다. 잉고 월터 부학장과 데이빗 이어맥 교수가 참여합니다.

ie business
school

IE스쿨

스페인 명문 비즈니스스쿨 IE스쿨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경영 대학원입니다. 경영학의 새로운 트렌드를 짚어주는 강의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清华经管学院 | MBA
Tsinghua SEM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올해 첫선을 보이는 칭화대 MBA는 중국을 대표하는 경영대학원 중 하나로 설립 2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접목시킨 교육과정을 제공, 중국 최고 수준의 MB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uanghua School of Management
Peki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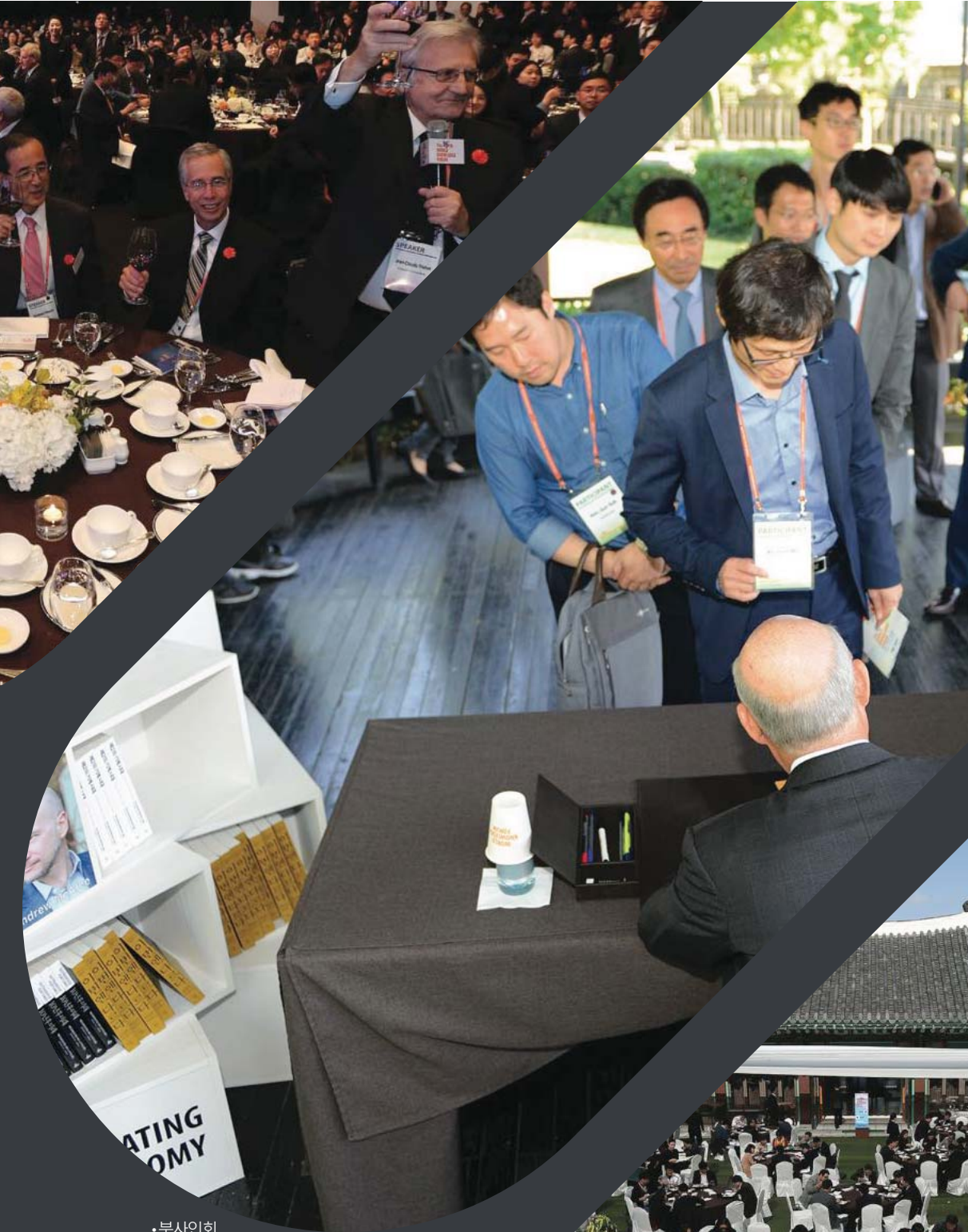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중국 최고 권위를 가진 경영대학원으로 이 대학 교수들은 중국 정부 경제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류차오 교수가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이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CKIGSIB
长江商学院
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KGSB

2002년 홍콩 리카싱 재단 후원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 비영리 민간 경영대학원입니다. 세계 유명 비즈니스 스쿨 출신 교수진과 전세계에서 활약중인 강한 동문 네트워크로 중국에서 명문 MBA로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빙 총장과 오양후이 교수가 참여합니다.



•북사인회



•네트워킹 오찬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5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100-728
Tel +82-2-2000-2411~8 Fax +82-2-2000-2419
E-mail: knowledge@mk.co.kr
Website: www.wkforum.org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우) 100-728
전화: (02) 2000-2411~2418 팩스: (02) 2000-2419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